

『熱河日記』所載「金蓼小抄」翻譯에 관한 研究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상영 · 권오민 · 오준호*

A Study on Translation of 「Kumryosocho(金蓼小抄)」

Park, Sang-young · Kwon, Oh-min · Oh, Jun-ho*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Objective : This paper is aimed at suggesting further tasks by checking and rectifying the errors of the ancient Chinese-vernacular Korean translations of Park Ji-won(朴趾源)'s 「Kumryosocho」.

Method : In order to correct the wrongly transcribed 「Kumryosocho」 was contrasted with the original 『Xiangzubiji(香祖筆記)』, of which the part is 「Kumryosocho」. And then the errors and mistakes are discovered in published ancient Chinese-to-vernacular Korean translations.

Result : In the course of checking the existing translations of 「Kumryosocho」, this paper identified the following types of errors.

1. Errors attributable to unfamiliar names of medicinal herbs
2. Errors due to the unfamiliarity with the names of diseases or symptoms in Traditional Korea Medicine(TKM).
3. Errors committed in hand transcription.

These types of errors were committed as well in translating jargons routinely used in TKM books. To the surprise, the errors above have been repeated even in the latest version of its translation. This means that the medicine-related materials by Silhak scholars, including 「Kumryosocho」, were placed at a dead zone of the research between Chinese classic scholars and TKM scholars.

Conclusion : To minimize errors and mistakes, it is needed to activate the cooperative work of heterogeneous experts in two academic fields.

Key words : Park Ji-won, 「Kumryosocho」, translation, error, TKM(Traditional Korea Medicine).

I. 서론

* 교신저자 : 오준호.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원. 대전 유성구
전민동 엑스포로 483.

E-Mail : junho@kiom.re.kr Tel : 042)868-9317
접수일(2012년 1월 19일), 수정일(2012년 2월 20일),
게재확정일(2012년 2월 20일)

주지하다시피 燕巖 朴趾源(1737-1805)은 우리나라
實學者 가운데 손에 꼽는 인물 가운데 하나이다.

文史哲 분야에서는 이미 그에 관한 수많은 論著가 쏟아져 나왔으며, 특히 漢文學 관련 분야에서는 茶山 丁若鏞(1762-1836)과 함께 연구사를 따로 다루어야 할 정도로 汗牛充棟의 연구결과가 쌓여 있다. 그 가운데 특히 『熱河日記』는 일찍부터 주목을 받아 전문 연구서나 논문은 물론¹⁾, 長安의 紙價를 들썩이게 한 서적마저 나온 바 있으며²⁾, 번역서만 하더라도 이미 수많은 種이 나온 바 있다³⁾⁴⁾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熱河日記』에서 유일하게 醫學을 다룬 부분인 「金蓼小抄」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학술연구가 단 1건도 없을 만큼 의학 방향에서의 연구진행은 全無에 가까운 상태이다⁶⁾. 그러나 정작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본격적인 학술연구의 不在로 인해 기존 번역 결과물에서 한의학 부분의 오류가 적지 않게 발견된다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 譯者들이 漢學者들로 구성되어 한문의 문장 자체의 구조에 대한 이해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지만, 한의학 지식을 온전히 발휘하기 힘든 상황에서 나온 어쩔 수 없는 결과인 듯하다. 본고는 이상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본격적인 한의학 학술연구의 기초 마련을 위해서 「金蓼小抄」의 기존 번역 결과물의 한의학 부분의 오류를 밝히고 그 부분을 중심으로 訂正된 번역문을 제시한 뒤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본 론

1. 「金蓼小抄」와 기존의 『熱河日記』 번역

- 1) 『熱河日記』 연구에서 필독서에 해당하는 연구서 가운데 다음 서적을 巨擘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김명호. 열하일기 연구.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0.
- 2) 고미숙.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 서울. 그린비. 2003. 03.
- 3) 박지원 씬. 리상호 옮김. 열하일기(겨레고전문학선집 1-3). 파주. 보리. 2004
- 4) 朴趾源 著. 李家源 譯註. 국역 열하일기 I, II.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6. 09.
- 5) 박지원 지음. 김철조 옮김. (새 번역 완역 결정판) 열하일기 1, 2, 3. 파주. 돌베개. 2011. 04.
- 6) 「金蓼小抄」에 보이는 처방의 개괄적 특성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결과를 참조 바란다. 박상영, 오준호, 권오민. 朝鮮 後期 韓醫學 外延擴大의 一局面. 한국한의학연구논문집 17권 3호. 2011년 12월. pp.1-8.

결과물

「金蓼小抄」는 淸 王士禎(王士禎, 1634-1711)의 저작인 『香祖筆記』에서 의학적 내용을 抄하고 글의 말미에 燕巖 자신의 經驗方을 덧붙인 작품이다. 서문에 의하면 「金蓼小抄」는 실생활에서 사용하기 위해 저작되었으며, 실제로 연암 자신이 산속에 거처하면서 처방을 활용하였다고 한다⁷⁾. 처방들은 단방 위주의 간단한 처방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몇몇 처방은 다소 복잡할 뿐 아니라 기존 한의서에서 보기 힘든 용례들이 보이기도 한다. 이는 『香祖筆記』의 成冊 자체가 정통 한의서보다는 의학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당시의 筆記類 등에서 끌어온 데서 연유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인용되는 서적도 明清代 叢書나 類書, 筆記 등의 目錄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생소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현재 학계에서 주로 거론되는 『熱河日記』 번역본을 들면 아래와 같다.

- ① 박지원 씬. 리상호 옮김. 열하일기(겨레고전문학선집 1-3). 파주. 보리. 2004.
- ② 朴趾源 著. 李家源 譯註. 국역 열하일기 I, II.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6. 09.
- ③ 박지원 지음. 김철조 옮김. (새 번역 완역 결정판) 열하일기1, 2, 3. 파주. 돌베개. 2011. 04.⁸⁾

- 7) 朴趾源. 燕巖集. 권15. 金蓼小抄. “내가 열하에 있을 때에 대리시경(大理寺卿) 윤가건(尹嘉鎰)에게, '요즘 의서(醫書)들 중에, 새로운 경험방(經驗方)으로 사서 갈 만한 책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내가 살고 있는 산중에는 의서도 없고 약제도 없으므로, 가다가 이질이나 학질에 걸리면 무엇이든 가능으로 대응하여 치료를 하는데, 때로는 맞는 것도 있기에 역시 아래에 붙여 산골 속에서 쓰는 경험방을 삼으려 한다.[余在漠北, 問大理尹卿嘉鎰曰: '近世醫書中, 新有經驗方, 可以購去者乎?'……余山中無醫方, 併無藥料, 凡遇痢瘧, 率以臆治, 而亦時偶中, 則今併錄于下以補之, 爲山居經驗方.]”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熱河日記. 金蓼小抄. [cited 2012 Feb. 12]: Available from URL: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M&url=/itkcd/b/text/nodeViewIframe.jsp?bizName=MM&seoJid=kc_mm_a568&gunchald=av015&muncheId=01&finId=005&NodeId=&setid=642789&Pos=0&TotalCount=11&se archUrl=ok)

* 본고에서는 독자의 이해를 돕고 번역논문이라는 특성을 살리기 위해 각주 문장을 번역하여 게재하고자 한다.

- 8) 이 번역물에 대해서는 대중성과 전문성을 고루 갖추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연구결과를

이 외에도 주요 번역본으로 김성철 선생의 문고본 5책(정음사), 윤재영 선생의 번역본(박영사) 등이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대개 위 3종의 번역본을 인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는 본고에서 위 번역물 가운데 특히 ②와 ③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전자의 경우, 매우 이른 시기의 번역물로, 번역에 필요한 제반 정보가 충분히 주어지지 못한 상태에서의 번역이기는 하지만,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종합DB>에서 번역문을 서비스하고 있어 그 파급효과가 다른 번역 결과물에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하며, 후자의 경우 가장 최근에 번역물을 내면서 기존의 오류들에 대한 보정을 상당 부분 거쳤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는 『金蓼小抄』에서 인용된 서적 등에 대해 미상 처리 부분이 많은데, 이는 명청대 叢書 및 筆記類 등에 대한 서지정보가 국내에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번역이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문제는 후자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 해소되었다⁹⁾. 다만 의학적인 부분에 대한 번역은 여전히 보정되어야 할 부분을 많이 남기고 있다. 그리고 또 지적되어야 할 기존 번역결과물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오류 사항 중 하나는 『金蓼小抄』이라는 저작의 속성 자체에 따른 것이다. 우리는 『金蓼小抄』가 『香祖筆記』에서 끌어와 성립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香祖筆記』를 통한 校勘 작업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교감의 저본은 아래와 같다.

王士禛. 香祖筆記.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2.

2. 번역 과정 및 방법론

이상의 諸問題에 대한 타개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작업과정을 두었다.

- ① 번역 대본의 확보
- ② 『香祖筆記』와의 對校 및 『金蓼小抄』 校勘
- ③ 한의학 정보의 취합
- ④ 인용되는 서적에 대한 서지정보의 확보

본고에서의 번역 이전의 한문 원문은 1932年刊鉛活字本 『燕巖集』의 『熱河日記』 所載 「金蓼小抄」(한국문집총간252)를 이용하였으며, 李家源 譯註本 『熱河日記』의 원문을 참조하였다. 이 두 서적 모두 현재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에서 원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¹⁰⁾¹¹⁾. 우리는 온전한 번역 대본 확보를 위해 상기 『香祖筆記』와의 對校를 통한 校勘을 거친 것으로 번역 대본을 삼았다.

이후 번역 과정에서 한의학 지식이 필요한 경우, 기존 연구가 충분히 진행된 연구를 십분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 가운데 『東醫寶鑑』에서 설명 가능한 한의학지식의 경우, 이 책에서 많은 부분 지식활용을 하였다. 이는 한의학 전공자 이외에 많은 연구자들의 경우, 이 책에 대한 정보 획득이 가장 용이하다는 판단에서였다. 다음으로, 『東醫寶鑑』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는, 『本草綱目』 등 방대한 본초지식이 설명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외 본초 관련 서적 및 전통의학 관련 사전 등을 활용하였다. 이외에 인용되는 서적 등에 대한 서지정보도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하였다. 특히 叢書 所載 작품들은 현재까지도 어느 총서에 속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정보로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인용된 서적이 叢書에 속한 경우는 그 작품이 속한 叢書의 이름과 기본적인 서지 정보를 밝혀주고자 하였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참고하기 바란다. 김동준. 연암 박지원의 저술에 대한 역주 성과를 되돌아보며 : 『연암집』, 『열하일기』 그리고 『연암산문정독』. 고전번역연구 제 2집. 한국고전번역학회. 2011. 09. pp.228-233.

9) 다만, “江隣幾雜志”를 “강린江隣의 『기잡지』幾雜志”라고 오역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번역에서 발생한 오타가 아닌가 여겨진다. ‘江隣幾雜志’는 그 자체가 書名이다. *각주 18번 참조.

10)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한국문집총간. 燕巖集. 熱河日記. 金蓼小抄. [cited 2012 Feb. 12]; Available from URL: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M>

11)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고전번역서. 열하일기. 금료소초. [cited 2012 Feb. 12]; Available from URL: http://db.itkc.or.kr/itkcd/text/imageViewPopup.jsp?bizName=MK&seojild=kc_mk_h008&gunchalid=av020&munchelid=01&finid=002&startPage=mk_h008_av020_597&endPage=mk_h008_av020_601

본고를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金蓼小抄」에 대하여 우리가 보정한 번역문을 제시하되 처방에 대한 손쉬운 비교를 위해 처방에 일련번호를 부기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결과물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항들에 대해서는 굵은 글씨체로 표시를 해 두기로 한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항목들을 한 눈에 파악하도록 표로 제시하고, 번역문에 대한 고찰 이후 향후 과제를 제시하기로 한다.

3. 「金蓼小抄」의 번역

- (1) 『物類相感志』: “山行慮迷, 握嚮虫一枚于手中, 則不迷矣.”

『물류상감지(物類相感志)』¹²⁾에 말하였다. “산길을 가다가 길을 잃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향충(嚮蟲)¹³⁾ 한 마리를 잡아 손에 쥐고 가면 길을 잃지 않는다.”

- (2) 『游宦紀聞』記: “程沙隨治腎虛腰痛, 杜冲酒浸透, 炙乾搗羅爲末, 無灰酒調下.” 又記: “治食生冷心脾痛, 用陳茱萸五六十粒, 水一盞煎, 取汁去滓, 入平胃散三錢, 再煎熱服.” 又: “沙隨常患淋, 日食白東瓜三

大盥而愈.”

『유환기문(遊宦紀聞)』¹⁴⁾에 말하였다. “송나라의 사수(沙隨) 정형(程迥)은 신허요통(腎虛腰痛)을 치료하는 경우에 두충을 술에 푹 담갔다가 구워서 말린 뒤 뺏아서 체질하여 가루를 내어 무회주(無灰酒)¹⁵⁾에 타서 먹는다.” 또 말하였다. “날것이나 찬 것을 먹어서 생긴 심비통(心脾痛)에는, 묵힌 오수유(吳茱萸)¹⁶⁾ 50~60알을 물 1잔에 넣고 달인 뒤 찌꺼기는 버리고 그 물에 평위산(平胃散)¹⁷⁾ 3돈을 넣고 다시 달여서 뜨거울 때에 복용한다.” 또 말하였다. “사수(沙隨)가 늘 임질(淋疾)을 앓았는데, 날마다 백동과(白東瓜)를 큰 사발로 3사발씩 먹었더니 나았다.”

- (3) 『江隣幾雜誌』及『候鯖錄』俱言: “古藥方一兩, 乃今

14) 유환기문(遊宦紀聞): 송(宋) 장세남(張世南)의 저작이다. 『설부(說郛)』와 명(明) 상준(商濬)의 『폐해(稗海)』 등의 총서에 수록되어 있다.

15) 무회주(無灰酒): 다른 것을 섞지 않은 술, 순주(醇酒)를 의미한다. 許浚 著, 윤석희, 김형준 외 옮김. 對譯 東醫寶鑑.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6. p.2014.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술, 즉 순주(醇酒)이다.[無灰酒 不雜他物者, 卽醇酒也.]”

16) 오수유(吳茱萸): 본문의 “茱萸”는 산수유(山茱萸), 식수유(食茱萸), 오수유(吳茱萸) 가운데 오수유(吳茱萸)를 의미한다. 오수유는 오래 묵혀 사용하는 육진약(六陳藥) 가운데 하나이며, 적냉(積冷)으로 인한 심복통(心腹痛)을 치료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이다.

『東醫寶鑑』에 따르면 16세기 조선에서는 오수유자 경주 지방에서만 식생하였다. 許浚 著, 윤석희, 김형준 외 옮김. 對譯 東醫寶鑑.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6. p.2223. “우리나라에는 경주에만 있고 다른 곳에는 없다.[我國惟慶州有之, 他處無.]”

17) 평위산(平胃散): 비위(脾胃)의 질환을 치료하는 처방 이름이다. 許浚 著, 윤석희, 김형준 외 옮김. 對譯 東醫寶鑑.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6. p.2223. “비위가 조화롭지 못하여 음식 생각이 없고 명치 부위가 불러오르고 아프며, 구역질땀꼭질을 하고 속이 메스꺼우며, 트림이 나고 탄산(吞酸)이 있으며, 얼굴이 누렇게 살이 마르며, 나른하여 눕기 좋아하고 자주 실사하는 것을 치료한다. 또한 객관오열(五噎)·팔비(八痞)·격기(膈氣)·반위의 증상을 치료한다. 창출 2돈, 진피 1.4돈, 후박 1돈, 감초 6푼. 이 약들을 썰어 1첩으로 하여 생강 3쪽, 대추 2개와 함께 물에 달여 먹는다. 또는 가루내어 2돈씩 생강과 대추 달인 물에 타서 먹는다. [平胃散. 治脾胃不和, 不思飲食, 心腹脹痛, 嘔噦惡心, 噫氣吞酸, 面黃肌瘦, 怠惰嗜臥, 常多自利. 或發霍亂, 及五噎八痞, 膈氣反胃等證. 蒼朮二錢, 陳皮一錢四分, 厚朴一錢, 甘草六分. 右剉, 作一貼, 薑三片棗二枚, 水煎服. 或爲末, 取二錢, 薑棗湯點服.]”

12) 물류상감지(物類相感志): 송(宋) 소식(蘇軾)의 저작이다. 도종의(陶宗儀)의 『설부(說郛)』와 진계유(陳繼儒, 1558-1639)의 『미궁비담(眉宮秘笈)』 등의 총서(叢書)에 수록되어 있다.

13) 향충(嚮蟲): 향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벌레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다음 글이 남아 있다.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紫姑戲辨證說【附蝨蟲】. “我東, 窓戶間, 夜有細砧聲杵響互答, 入秋最清, 宛有罔砧亂杵思自傷, 爲君秋夜搗衣裳這意, 諺傳古色閨氏砧聲, 竟未知何爲而然. 按李石『續博物志』云: ‘人家有小蟲, 至微而響甚, 尋之率不可見, 號嚮蟲, 大如半胡麻, 形如鼠婦, 有兩角, 白色, 振其頭則有聲.’ 孟康朝作賦, 比之鬼魔云. 今我所謂砧蟲, 卽此也. 或曰: ‘生砧聲者, 卽嚮鑽木聲, 此或爲然.’ 非也. 嚮蝨聲, 何獨出於窓櫺間耶? 又有可辨者, 此名嚮蟲, 則與『相感志』嚮蟲爲一否? 『物理相感志』: ‘山行慮迷, 握嚮蟲一枚于手中, 則不迷.’ 無乃與『博物志』嚮蟲爲一蟲否乎?”(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국학원전. 五洲衍文長箋散稿. 紫姑戲辨證說【附蝨蟲】. [cited 2012 Feb. 12]. Available from URL: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KO&url=/itkcdb/text/nodeViewIframe.jsp?bizName=KO&seojid=kc_ko_h010&gunchalId=av017&munchelId=04&finId=078&NodeId=&setid=646349&Pos=0&TotalCount=1&searchUrl=ok)

之三兩，隋合三兩爲一兩。”

『강인기잡지(江隣幾雜志)』¹⁸⁾와 『후정록(侯鯖錄)』¹⁹⁾ 두 책에서 모두 말하였다. “옛 처방의 1냥은 곧 오늘날의 3냥이니, 수(隋)나라 때에 3냥을 합쳐서 1냥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4) 『楓窓小牘』記: “東坡一帖，錄足疾，用葦靈仙牛膝二味爲末，蜜丸，空心服，神效。”

『풍창소독(楓窓小牘)』²⁰⁾에 말하였다. “동파(東坡)의 어떤 첩(帖)²¹⁾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다리가 아픈 경우²²⁾에는 위령선과 우슬 2가지 약재를 가루 내어 꿀에 버무려 환을 지어서 공복에 복용하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

(5) 治水腫方，用田螺大蒜車前草，和研爲膏，作大餅，覆臍上，水從便出，卽愈。

수종(水腫)을 치료하는 처방은 다음과 같다. 우렁이, 마늘, 차전초를 함께 갈아 고약을 만들어 큰 떡 크기로 만든 뒤 배꼽 위를 덮으면 물이 대소변을 따라서 나오고 곧 낫는다.

(6) 治嗽驗方，香櫟去核，薄切作細片，以清酒同研，入砂罐內，煑令爛熟，自黃昏至五更爲度，用蜜拌勻，當睡中喚起，用匙挑服，甚效。又向南柔桑條一束，每條寸折，納鍋中，用水五椀，煎至一椀，渴卽飲之。

- 18) 강인기잡지(江隣幾雜志) : 북송(北宋) 강휴복(江休復)의 저작이다. 인기(隣幾)는 강휴복의 호이다. 『미공비급(眉公秘笈)』과 『패해(稗海)』 등의 총서에 수록되어 있다.
- 19) 후정록(侯鯖錄) : 송(宋) 조영치(趙令時)의 저작이다. 『설부(說郛)』와 『패해(稗海)』 등의 총서에 수록되어 있다.
- 20) 풍창소독(楓窓小牘) : 송(宋) 원경(袁敬)의 저작이다. 『설부(說郛)』 『미공비급(眉公秘笈)』 『패해(稗海)』 등의 총서에 수록되어 있다.
- 21) 첩(帖) : 책 속에 무엇을 표시하기 위하여 붙이는 쪽지. 지금의 첩지(籤紙).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cited 2012 Feb. 12]: Available from URL: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K&url=/itkcd/text/nodeView/frame.jsp?bizName=MK&seojid=kc_mk_a001&gunchald=av001&muncheId=03&finId=004&NodeId=&setid=650172&Pos=0&TotalCount=1&searchUri=ok)
- 22) 다리가 아픈 경우 : 원문의 “足疾”은 하지부(下肢部) 통증을 호소하는 질환을 의미한다. 위령선과 우슬 모두 하지부위가 차고 아픈 증상을 치료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해수(咳嗽)²³⁾를 치료하는 경험방은 다음과 같다. 씨를 발라낸 향연²⁴⁾을 얇게 썰어 얇은 절편을 만들어서 청주에 넣고 갈아서 사기로 만든 탕관에 넣고 황혼부터 5경(새벽 4시) 때까지 푹 달인 뒤 꿀에 고루 섞어 둔다. 이것을 환자가 한참 잠잘 때에 깨워서 숟가락으로 떠먹게 하면 큰 효험이 있다. 또 남쪽으로 뻗은 부드러운 뽕나무 가지 한 묶음을 가지마다 1촌씩으로 잘라 술에 넣는다. 여기에 물 5사발을 넣고 1사발이 될 때까지 달여서 갈증이 날 때마다 마신다.

(7) 宋孝宗食蟹過多患痢，有嚴防禦者，用新採藕節研細，熱酒調服，果愈。

송나라 효종[조신(趙昚)]은 게를 많이 먹고 이질을 앓았는데, 엄방어(嚴防禦)라는 자가 새로 썬 연근[藕節]을 곱게 갈아서 뜨거운 술에 타서 복용하게 했더니 과연 나았다.

(8) 治眼病生赤障者，用白螺一枚，去掩，以黃連末摻之，置露中一夜，曉取肉，化爲水，滴目則障自消。

붉은 예장(瞖障)이 생긴 눈병을 치료하는 경우에는, 흰 소라[白螺]²⁵⁾ 1마리를 까서 껍질은 버리고 황련

23) 해수(咳嗽) : 원문에 ‘嗽’로 되어 있어 엄밀하게는 ‘수(嗽)’로 풀이해야 하나, 일반 독자들에게 해수(咳嗽)라는 용어가 친숙하고 실제 임상에서도 ‘咳’와 ‘嗽’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이렇게 풀었다. ‘咳’와 ‘嗽’의 구분에 대하여는 다음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許浚 著, 윤석희, 김형준 외 옮김. 對譯 東醫寶鑑.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6. p.1323. “해(咳)는 가래가 없고 소리만 있는 것이니 폐기가 상하여 맑지 않은 것이다. 수(嗽)는 소리는 없고 가래만 있는 것이니 비습(脾濕)이 움직여서 가래가 된 것이다. 해수(咳嗽)는 가래도 있고 소리도 나는 것이다. 폐기를 상하고 비습이 움직였기 때문에 기침하고 가래가 끼는 것이다. [咳謂無痰而有聲，肺氣傷而不清也。嗽，謂無聲而有痰，脾濕動而爲痰也。咳嗽者，有痰而有聲，因傷肺氣動於脾濕，故咳而兼嗽也.]”

24) 향연(香楸) : 운향과 감글속의 식물로 구연(枸櫞)이라고도 한다. 본초서 가운데 『본초봉원(本草逢原, 1695)』에서 처음으로 “治咳嗽氣壅.”이라고 하여 해수(咳嗽)에 대한 치료 효능을 언급한 바 있다. 江蘇新醫學院 編. 中藥大辭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4. p.1679.

25) 흰 소라[白螺] : 바다에서 나는 흰색 소라를 의미한다. 백라를 이용한 이 처방은 『東醫寶鑑』에도 수용되어 있다. 許浚 著, 윤석희, 김형준 외 옮김. 對譯 東醫寶鑑.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6. p.2095. “바다에서 나는 소라. 눈이

가루를 뿌린 뒤 하룻밤 동안 이슬을 맞으면 새벽에 소라의 살이 물로 변해 있다. 이 물을 눈에 떨어 뜨리면 예장이 저절로 없어진다.

(9) 骨鯁, 用犬涎, 穀芒, 用鵝涎灌之, 卽愈.

뼈가 목에 걸렸을 경우에는 개의 침을 입속에 부어주고, 곡식 까끄라기가 걸렸을 경우에는 거위의 침을 입속에 부어주면 곧 낫는다.

(10) 凡溺水及服金屑, 用鴨血灌之, 卽愈.

무릇 물에 빠졌거나 쇠붙이를 먹은 경우에는 오리의 피를 입속에 부어주면 곧 낫는다.

(11) 耳聲暴症, 用全蝎去毒爲末, 酒調滴耳中, 聞聲卽愈.

갑자기 귀머거리가 된 경우에는, 전갈을 독을 없애고 가루 내어 술에 타서 귓구멍에 똑똑 떨어 뜨리면 소리가 들리며 곧 낫는다.

(12) 枸杞子榨油, 點燈觀書, 能益目力.

구기자로 기름을 짜서 등불을 켜고 책을 읽으면 시력을 더 좋게 할 수 있다.

(13) 金瘡傷, 用獨穀大粟, 研乾末敷之, 立愈.

쇠붙이에 다쳤을 경우에는 큰 외톨밤을 갈아서 말려 가루 낸 뒤 상처에 붙여주면 곧 낫는다.

(14) 治喉痺乳蛾, 用蝦蟆衣鳳尾草, 搗細, 入霜梅肉, 煑酒.

各小許調和, 再研細布絞汁, 以鵝毛刷患處, 吐痰卽消.

후비(喉痺)나 유아(乳蛾)에는 차진초[蝦蟆衣]와 봉미초(鳳尾草)를 곱게 간 다음, 상매육(霜梅肉)²⁶⁾을

오랫동안 아프고 낫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 생 소라의 입을 벌려 황련을 넣고 받은 즙을 눈에 넣는다. 바다에서 나는 소라이다. 海螺. 治目痛久不愈. 取生螺, 抹開, 以黃連納螺口中, 取汁點目中. 海中小螺也.”

26) 상매육(霜梅肉) : 소금에 법제한 매실을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백매(白梅)라고 한다. 李時珍 編纂, 劉衡如, 劉山永 校注. 『(新校注本) 本草綱目』. 北京. 華夏出版社. 1998. p.1166. “(백매) 【이름풀이】 엄매, 상매. 【수치】 크고 푸른 매실을 소금물에 적시는데, 낮에는 벌에 말리고 밤에는 담가두기를 10일하면 완성된다. 오래되면 위에 서리 같은 것이 생긴다. [(白梅) 【釋名】 鹽梅, 霜梅. 【修治】 取大青梅以鹽汁漬之, 日晒夜漬, 十日成矣. 久乃上霜.]”

술에 넣어 달인다. 이것들을 각각 조금씩 섞은 뒤 다시 갈아서 고운 베로 걸러 즙을 내어서 거위 깃털에 찍어 환부를 쓸어내면 담을 토해내고 곧 낫는다.

(15) 惡瘡腫毒初起, 當歸·黃檗皮·羌活爲細末, 生鷺鷥膝搗汁, 調傳瘡之四圍, 自然收毒, 聚作小頭卽破. 切不可併瘡頭傳之.

악창이나 종독(腫毒)이 갓 났을 경우에는 당귀·황백피[黃檗皮]·강활을 곱게 가루 낸 뒤 인동[鷺鷥藤] 생것을 찢은 즙에 개어서 혈은 부위의 사방에 붙이면 저절로 독기를 빨아들여서 독기가 모여 조그마한 돌기[小頭]를 이루다가 곧 터진다. 이 때 창두(瘡頭, 종기의 꼭지 부분) 부분에 같이 붙여서는 절대 안 된다.

(16) 『筆記』云: “宋時徑山僧行園, 爲蛇傷足, 一參方僧爲治之. 先汲淨水洗之, 易水數斛, 令腐濃敗肉悉去, 瘡上白筋見, 乃搥以軟帛, 以藥末勻糝瘡中, 惡水泉湧, 明日淨洗, 敷藥如初, 一月毒盡肉生, 平復如舊. 其方乃香白芷爲末, 入鴨嘴膽礬·麝香各小許. 見『談藪』.”

『향조필기(香祖筆記)』에 말하였다. “송(宋)나라 때 경산(徑山)에 살고 있던 중이 동산을 거닐다가 뱀에게 다리를 물렸는데, 어떤 참방승(參方僧, 일정한 거처 없이 선지식을 참배하여 깨달음을 얻으려고 했던 스님)이 치료해 주었다. 우선 맑은 물을 길어서 상처를 씻어내되 물을 몇 섬이나 갈아가며 썩고 문드러진 나쁜 살들을 모두 없어질 때까지 한 뒤, 상처에 흰 힘줄이 드러나자 곧 부드러운 비단에 약가루를 묻히듯이 떠서 상처 위에 대고 비단을 살살 흔들면서 고루 뿌려주니 악수(惡水)가 샘처럼 솟아 나왔다. 다음날 깨끗이 씻어내고 처음 씻을 때의 약을 바르니, 한 달 만에 독이 모두 가시고 새살이 돌아나 예전처럼 회복되었다. 그 처방은 다음과 같다. 향백지²⁷⁾를

27) 향백지(香白芷) : 백지(白芷)의 이명(異名) 가운데 하나로, 향기가 짙은 백지의 특징을 나타낸 이름이다. 李時珍 編纂, 劉衡如, 劉山永 校注. 『(新校注本) 本草綱目』. 北京. 華夏出版社. 1998. p.586. “(백지의 이명으로) 본초서에 방향(芳香), 택분(澤芬)이라는 이름이 있다. 옛사람들은 ‘향백지’라고 하였다. [本草有芳香澤芬之名, 古人謂之香白芷.]”

가루 낸 뒤, 여기에 최상품 석담[鴨嘴膽礬]²⁸⁾·사향 각각 조금을 넣는다. 이 내용은 『담수(談藪)』²⁹⁾에 실려 있다.”

(17) 治血山崩, 當歸一兩, 荊芥一兩, 酒一鍾, 水一鍾, 煎服立止.

붕중(崩中)³⁰⁾을 치료하는 처방은 다음과 같다. 당귀 1냥과 형개 1냥을 술 1되와 물 1되에 달여서 복용하면 즉시 하혈을 그친다.

(18) 撫州商人病痢甚, 太學生倪某, 用當歸未阿魏丸之, 白滾湯送下, 三服而愈.

무주의 상인이 이질을 앓아 매우 위급하였는데, 태학생(太學生) 예(倪) 아무개가 당귀 가루와 아위로 환을 빻어 끓인 물로 삼키게 하되 3차례 이렇게 복용하게 했더니 나았다.

(19) 又治病方, 黃花地丁, 搗取自然汁一酒盞, 加蜂蜜少許服之, 神效.

또 이질을 치료하는 처방은 다음과 같다. 민들레[黃花地丁]³¹⁾를 찧어서 술잔으로 1잔 즙을 낸 뒤,

28) 석담[石膽, 鴨嘴膽礬] : 광물성 약재의 하나로, 담반(膽礬)이라고도 한다. 석담 가운데 오리 주둥이 빛깔이 나는 최상품 석담을 압취담반(鴨嘴膽礬)이라고 한다. 李時珍 編纂. 劉衡如, 劉山永 校注. 『(新校注本) 本草綱目』. 北京. 華夏出版社. 1998. pp.421-422. “‘담’은 빛깔과 맛 때문에 이름 붙었다. 세속에서는 백반과 유사하다고 하여 담반이라고 한다. [膽以色味命名. 俗因其似礬, 呼爲膽礬.]”, “포주산 동굴 속에서 나는 것 가운데 오리 주둥이 빛깔이 나는 것이 상품이다. 세속에서 ‘담반’이라고 한다. 강리에서 나는 것은 색이 조금 검은데, 이것이 그 다음이다. 신주에서 나는 것이 또 그 다음이다. [石胆出蒲州山穴中, 鴨嘴色者爲上, 俗呼胆礬. 出羌里者色少黑. 次之. 信州又次之.]”

29) 담수(談藪) : 송(宋) 방원영(龐元英)의 저작이다. 『설부(說郛)』에 수록되어 있다.

30) 붕중(崩中) : 자궁 출혈의 일종이다. 許浚 著, 윤석희, 김형준 외 옮김. 對譯 東醫寶鑑.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6. pp.305-306.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하혈하는 경우에 계속하여 찔끔찔끔 나오는 것을 누하(漏下)라 하고, 산이 무너지듯 갑자기 피를 쏟아내는 것을 붕중(崩中)이라고 한다. [非時血下, 淋瀝不止, 謂之漏下, 忽然暴下, 若山崩然, 謂之崩中.]”

31) 민들레[黃花地丁] : 황화지정(黃花地丁)은 민들레[蒲公英]의 이명(異名)이기도 하고 영경귀[大薊]의 이명이기도 하다. 영경귀는 어혈(瘀血)이나 출혈(出血)을 치료하고,

여기에 벌꿀을 조금 넣어서 복용하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

(20) 濕痰腫痛不能行, 用糯蒼草·木紅花³²⁾·蘿菈英·白金鳳花·水龍骨·花椒·槐條·蒼朮·金銀花·甘草, 以上十味煎水, 蒸患處, 水稍溫, 卽洗之.

습담으로 붓고 아파서 걷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처방을 쓴다. 희렴초·수홍화(水紅花, 地芬子)·무꽃·백금봉화(白金鳳花)·수룡골(水龍骨)·화초(花椒, 산초나무 열매)·희화나무 가지·창출금은화·감초. 이상 10가지 약재를 물에 넣고 끓여서 환부에 훈증한 뒤, 물이 식어서 조금 따뜻할 때에 즉시 씻어낸다.

(21) 治小腸疝氣, 烏藥六錢, 天門冬五錢, 白水煎服, 神效. 소장산기(小腸疝氣)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오약 6돈, 천문동 5돈을 맹물에 넣고 달여서 복용하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

민들레는 식독(食毒)을 풀고 체기(滯氣)를 내리는 효과가 있다. 본문의 이질이 출혈을 동반한 농혈리(膿血痢)라고 하더라도 영경귀로 치료하는 것은 적응증이 잘 들어맞지 않는다. 따라서 음식으로 인해 발생한 적리(積痢)에 민들레를 사용한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許浚 著, 윤석희, 김형준 외 옮김. 對譯 東醫寶鑑.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6. p.2182. “지정(地丁)이 곧 대계이다. 꽃이 노란색인 것을 황화지정(黃花地丁)이라 하고, 자주색인 것을 자화지정(紫花地丁)이라고 한다. 모두 옹종에 주로 쓴다. [地丁, 卽大薊也. 黃花者, 名黃花地丁, 紫花者, 名紫花地丁, 并主癰腫.]” 陳嘉謨. 本草蒙筌.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8. p.181. “포공초. 즉 황화지정초이다. [蒲公英, 卽黃花地丁草.]” 金理山인. 국역 의취 1.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10. p.199. “○황화지정(黃花地丁) 【포공영(蒲公英), 민간에서는 민들레라고 한다】 을 찧어 즙을 내고 술 1잔에 넣고 꿀을 약간 더하여 복용하면 매우 효과가 좋다. [○黃花地丁 【蒲公英, 俗名뽕음드레】 , 搗取自然汁, 酒一盞, 加蜜少許, 服之, 甚效.]”

32) 木紅花 : 『향조필기(香祖筆記)』에는 ‘水紅花’로 되어 있다. 王士禛. 香祖筆記.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2. 12. p.144. 수홍화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 바란다. 趙秀三. 秋齋集. 권3. 北行百絕. “有果曰地芬子. 色香味三絕. 而朝熟午爛如冰消. 寧古塔人謂之水紅花. 康熙時賞賜筵臣. 事見李光地榕村集中.”(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cited 2012 Feb. 12]: Available from URL: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M&url=/itkcd/text/nodeViewIframe.jsp?bizName=MM&seojid=kc_mmm_a592&gunchalId=av003&muncheId=01&finId=094&NodeId=&etid=652206&Pos=0&TotalCount=11&searchUrl=ok)

(22) 治小便不通，芒硝一錢研細，以龍眼肉包之，細嚼燕下，立效。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을 치료하는 경우에는, 망초 1돈을 곱게 갈아서 용안육(龍眼肉)으로 싸서 푹푹 씹어서 삼키면 바로 효험을 본다.

(23) 治癰方，用竹刺將癰頂，稍稍發開油皮，勿令見血，細研銅綠小許，放撥開處，以膏藥貼之。

혹[癰]을 치료하는 처방은 다음과 같다. 대나무로 혹의 정수리 부분을 찌르고 피가 나지 않도록 조금씩 꺾질을 벌린 뒤 곱게 간 동청[銅綠, 구리의 푸른 녹] 약간을 벌려진 곳에 뿌리고 고약으로 붙여 둔다.

(24) 接骨方，土鱉用新瓦焙乾半兩錢，淬次³³⁾自然銅乳香沒藥菜瓜子仁各等分。爲細末，每服一分半酒調下。上體傷食後服，下體傷空心服。

접골(接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충[蟪蟲, 토鱉]³⁴⁾(새 기와에 놓고 불기운에 말린 것) 반냥돈(半兩錢)³⁵⁾, 자연동(식초에 7차례 담금질한 것)·유향·몰약·채과자인(菜瓜子仁) 각각 같은 양. 이상의 약재를 곱게 가루 내어 매번 1푼 반씩 술에 타서 복용한다. 상체의 뼈가 상했을 때는 식후에 복용하고, 하체의 뼈가 상했을 경우에는 공복에 복용한다.

33) 淬次 : 『향조필기』에는 ‘醃淬七次’로 되어 있다. 王士禛. 香祖筆記.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2. 12. p.145. 번역은 이를 따른다.

34) 자충[蟪蟲, 토鱉] : 왕바퀴와 곤충의 하나이다. 생긴 모양이 자라와 비슷하다고 하여 ‘지벌(地鰲)’ 혹은 ‘토벌(土鱉)’이라고 한다. 李時珍 編纂. 劉衡如, 劉山永 校注. 『(新校校本) 本草綱目』. 北京. 華夏出版社. 1998. p.1548. “납작한 모양이 자라와 같아 ‘토벌’이라고 한다. [形扁扁如鼈. 故名土鱉.]”

35) 반냥돈(半兩錢) : 중국 진(秦)나라·한(漢)나라 때에 만들어 쓰던 청동 화폐. 원형의 가운데 네모난 구멍이 뚫려 있고 둘레의 테는 없으며, ‘반량(半兩)’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진반량(秦半兩)은 BC 221년 시황제의 중국 통일 때 발행한 것으로 가장 크며 액면대로 무게 12수(銖:반냥)가 기준이다. 한반량(漢半兩)은 BC 186년(高后 2)과 BC 175년(문제 5)에 발행되었으며, 전자는 무게가 8수이기 때문에 8수반냥, 후자는 무게가 4수이기 때문에 4수반냥이라고 한다. (네이버 백과사전. [cited 2012 Feb. 12]: Available from URL: <http://100.naver.com/100.nhn?docid=70322>)

(25) 治疫頭面腫方，金銀花二兩，濃煎一盞，服之，腫立消。 온역으로 머리와 얼굴이 부은 것을 치료하는 처방은 다음과 같다. 금은화 2냥을 진하게 달여서 1잔을 복용하면 부기가 곧 없어진다.

(26) 針入腹，用樸炭末三錢，井水調服下。又方，以磁石置肛門外引下。

바늘이 뱃속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상수리나무[櫟]³⁶⁾의 숯가루 3돈을 우물물에 타서 복용한다. 또 다른 처방은 다음과 같다. 자석으로 항문에 대고 밖으로 끌어당겨서 나오게 한다.

(27) 荊芥穗爲末，以酒調下三錢，治中風立愈。

형개수를 가루 내어 3돈을 술에 타서 먹이면 중풍이 즉시 낫는다.

(28) 治走馬疳，用瓦壟子【比蚶子差小，用未經醬者】連內煨燒存性，置冷地，用蓋蓋覆候冷，取出碾爲末，糝患處。又一方，馬蹄燒灰，入鹽小許，糝患處。

주마감(走馬疳)³⁷⁾을 치료하는 처방은 다음과 같다. 꼬막[瓦壟子]【새꼬막보다 조금 작은 것으로, 장에 걸이지 않은 것】을 내장을 제거하지 않은 채 약성이 남게 불살라 차가운 곳에 두고 잔 뚜껑으로 덮어서 식기를 기다린다. 이것을 끄집어내어 맷돌로 갈아서 가루 내어 환부에 뿌려준다. 또 다른 처방은 다음과 같다. 말발굽 태운 재에 약간의 소금을 넣고 환부에 뿌려준다.

(29) 治瘡疹黑陷，用沉香乳香檀香，不拘多少，放火盆

36) 상수리나무[櫟] : 역(櫟)은 상수리나무[橡]의 이명(異名)이다. 許浚 著, 윤석희, 김형준 외 옮김. 對譯 東醫寶鑑.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6. p.2241. “작(柞)·역(櫟)·저(杼)·허(榘)는 모두 상수리의 통칭이다. [柞也, 櫟也, 杼也, 榘也, 皆橡櫟之通名也.]”

37) 주마감(走馬疳) : 소아(小兒)에게 발생하는 감증(疳症) 가운데 하나이다. 병세가 달리는 말과 같이 빠르다고 하여 ‘주마(走馬)’라고 하였다. 잇몸이 헐고 심하면 이뿌리가 깎물러 치아가 빠지기도 한다. 두창(痘瘡)을 앓은 뒤에 주로 발생한다. 許浚 著, 윤석희, 김형준 외 옮김. 對譯 東醫寶鑑.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6. p.2014. pp.1879- 1880.

內焚之,抱兒於烟上熏之,即起.

두진이 검게 함몰된 것[痘疹黑陷]³⁸⁾을 치료하는 경우에는, 침향유향단향을 양에 구애받지 말고 화로[火盆] 안에 넣고 불사른 뒤 아이를 안고 그 연기를 쫓게 하면 함몰된 것이 곧 뜰게 된다.

(30) 治惡瘡,取冬瓜一枚,中截之,先以一頭合瘡,候瓜熟,削去,再合,熱減乃已.又一方,用蒜泥作餅,瘡上灸,不痛灸痛,痛者灸不痛,即止.

악창(惡瘡)을 치료하는 경우에는,冬瓜(冬瓜) 1개를 반으로 쪼개어서 우선 한 쪽을 혈은 부위에 붙인 뒤,冬瓜가 데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데워진 부분은 베어 버리고 다시 가져다 붙이되 열이 식은 뒤에야 그만 둔다. 또 다른 처방은 다음과 같다. 다진 마늘을 떡처럼 만들어 혈은 부위에 올려놓고 뜸을 뜨되,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뜸을 뜬 다음 멈춘다.

(31) 小兒耳後生瘡,腎疳也.地骨皮一味爲末,麝者,熱湯洗之,細者,香油調擦.

어린이의 귀 뒤가 허는 것을 신감(腎疳)이라 한다. 지골피 한 가지 약재만을 가루 내어 쓰는데, 거친 가루는 뜨거운 물에 타서 혈은 부위를 씻어내는 데에 쓰고, 고운 가루는 참기름에 개어서 혈은 부위에 발라준다.

(32) 兩廣雲貴,多有蟲毒,飲食後,咀嚼當歸,即解.

광둥·광서·운남·귀주에는 벌레 독에 중독되는 경우가 많은데, 음식을 먹은 뒤에 당귀를 꼭꼭 씹어 먹으면 바로 해독된다.

(33) 葉蒲州「南巖傳」治刀瘡藥方:“端午日,取韭菜汁,和石灰,杵熟爲餅,用敷瘡處,血即止,卽骨破亦可合,奇效.”

섭포주(葉蒲州)의 「남암전(南巖傳)」에는 갈에 다진

38) 두진이 검게 함몰된 것[痘疹黑陷]: 두창(痘瘡)의 악증(惡症) 가운데 하나로, 두창이 터지지 않으면서 한꺼번에 검게 되는 것이다. 예후가 매우 좋지 않다. 許浚 著, 윤석희, 김형준 외 옮김. 對譯 東醫寶鑑.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6. pp.1942-1943. “(두창이) 터지지 않으면서 한꺼번에 검게 되는 것이 흑함이다.[未綻一齊黑者,爲黑陷.]”

상처를 치료하는 약방문이 보인다. “단오일에 채취한 부추를 즈내어 여기에 석회를 갠 뒤 찜고 익혀서 떡처럼 만들어 상처에 붙이면 피가 곧 멎고, 뼈가 부러졌어도 붙게 되어 기이한 효험을 본다.”

(34) 薏苡³⁹⁾,一名簞珠.

의이(薏苡, 율무)는 간주(簞珠)라고도 한다.

(35) 『癸辛雜志』云:“治喉閉,用帳帶散,惟白礬一味,或不盡驗.南浦有老醫,教以用鴨嘴膽礬研細,以嚴醋調灌,有鈴下老兵妻,患此垂殆,如法用之,藥甫下咽,卽大吐膠痰數升,立差.又治眼瘡,用熊膽少許,以淨水略調,盡去筋膜塵土,用冰腦一二片.瘡則加生薑粉些少,時以銀筋點之,奇驗.赤眼亦可用.”

『계신잡지(癸辛雜志)』⁴⁰⁾에 말하였다. “목구멍이 막힌 것을 치료하는 경우에는, 장대산⁴¹⁾을 쓰는데, 백만 한 가지 약재만으로 되어 있으며, 간혹 효험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남포의 어떤 늙은 의원이 석담[石膽, 鴨嘴膽礬]을 곱게 갈아서 독한 식초에 섞어 입속에 부어주라고 하였는데, 문지기[鈴下]⁴²⁾를 하는 어떤 늙은 병사의 아내가 이 병을 앓아서 거의 죽게

39) 薏苡: 『향조필기』에는 ‘薏苡’로 되어 있다. 두 글자 간의 유사성에 의한 필사상의 오류로 보이는데, 오늘날에도 중국에서는 ‘薏苡’를 ‘薏苡’로 표기하기도 한다. 王士禛. 香祖筆記.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2. p.195.

40) 계신잡지(癸辛雜志): 송(宋) 주밀(周密)의 저작이다. 『설부(說郛)』와 『패해(裨海)』 등의 총서에 수록되어 있다.

41) 장대산: 갑자기 목구멍이 막히는 증상을 치료하는 처방이다. 朱輔. 普濟方. 卷61. 書同文. 欽定四庫全書[CD-ROM]. 北京. 書同文. 1999. “장대산. 갑자기 목구멍이 막히는 경우와 후풍을 치료한다. 생백반을 곱게 가루내어 냉수에 2돈 마신다. 우리 가문에서는 늘 사용하였는데, 장대 위에 매어 놓아 갑작스러운 때를 대비하였다. [帳帶散. 治急喉閉, 並喉風. 用生白礬研爲細末, 冷水調下二錢, 余家嘗用之, 系於帳帶上, 以備緩急.]”

42) 鈴下: 시위(侍衛)를 하는 군사나 문을 지키는 군졸, 사역을 하는 노복(奴僕)을 가리킨다. 이들은 방울이 달린 헝문(夾門) 아래에 있으면서 비상시나 교대할 때 방울을 울려 전한 데에서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cited 2012 Feb. 12]: Available from URL: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K&url=itkcd/t_ext/nodeViewiframe.jsp?bizName=MK&seojid=kc_mk_j011&gunchalId=fv003&munchelId=01&finId=001&NodeId=&setid=655943&Pos=0&TotalCount=1&searchUrl=ok)

되었을 때 이 처방대로 썼더니 약이 목구멍으로 넘어 가자마자 뻑뻑한 가래[膠痰]를 여러 되 크게 토하더니 곧 나왔다. 또 눈의 예장(翳障)을 치료하는 경우에는, 응담 약간을 깨끗한 물에 대충 푼 뒤 응담의 근막과 먼지를 모두 씻어내고 빙뇌 1~2조각을 넣어 쓴다. 가려운 경우에는 여기에 생강가루 약간을 더한다. 이것을 때때로 은젓가락에 묻혀 눈에 푹푹 떨어 뜨리면 기이한 효험이 있다. 충혈된 눈에도 쓸 수 있다.”

(36) 『閩小記』云：“燕窩有烏白紅三種，惟紅者最難得。白者能治痰疾，紅者有益小兒痘疾。”

『민소기(閩小記)』⁴³⁾에 말하였다. “제비둥지에는 검은색, 흰색, 붉은색의 3가지 종류가 있는데, 붉은 색이 가장 구하기 힘들다. 흰색 제비둥지는 담질을 치료할 수 있고 붉은색 제비둥지는 어린아이의 천연두[痘疾]에 좋다.”

(37) 唐太宗病痢，諸醫不效。金吾長史張寶藏進方，以乳煎葦莢，服之立差。

당나라 태종이 이질을 앓았는데 온갖 의원들이 치료했으나 효험이 없었다. 금오장사(金吾長史) 장보장(張寶藏)이 처방을 올렸는데, 처방에 따라 쪼으로 필발(葦撥)을 달여서 복용했더니 곧 나왔다.

(38) 周公謹述括蒼陳皮[披]言：“治痘瘡色黑倒靨唇口冰冷方，用狗蠅七枚，搗碎[碎]，和醅酒少許調服，移時即紅潤如舊。冬月蠅藏狗耳中。”

주공근(周公謹)이 괘창진과(括蒼陳皮)⁴⁴⁾의 말을

43) 민소기(閩小記) : 청(淸) 주양공(周亮工)의 저작이다. 청(淸) 오진방(吳震方)의 『설령(說鈴)』이라는 총서에 수록되어 있다. 주양공은 조선후기에 많이 인용되는 서적인 『인수옥서영(因樹屋書影)』의 작자이기도 하다.

44) 괘창진과(括蒼陳皮) : 괘창진과의 일화는 『본초강목』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李時珍 編纂 劉衡如, 劉山永 校注. 『(新校注本) 本草綱目』. 北京. 華夏出版社. 1998. p.1530. “주밀이 말하였다. 동료 괘창진과는 나이든 선비로, 이렇게 말하였다. 그의 손자가 3살 때 두창이 생겼는데, 도엽이 되고 색이 검고 입술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위급한 중세였다. 모든 약들을 두루 써 보았으나 효과가 없었으나 마침 이 병을 낫게 하는데 매우 효과가 좋은 약이 있었다. 일이 한가한 때에 이 약을 가지고 돌아가 복용시켰더니 조금 지나 두창이 붉고 윤기를 띠게 되었다고 한다. 간절히 그 처방을 구해보니 개파리 7마리를 곱게 갈아서 약간의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두창이 색이 검고 도엽(倒靨)⁴⁵⁾이 되고 입술이 얼음장처럼 찬 것을 치료하는 처방은 다음과 같다. 개파리[狗蠅] 7마리를 갈아서 약간의 막걸리에 섞어서 복용하면 잠시 뒤에 두창이 예전처럼 붉고 윤기를 띠게 된다.⁴⁶⁾ 개파리는 겨울에 개의 귓속에 숨어 있다.”

(39) 治痘毒上攻內障方，用蛇蛻一具，淨洗焙燥，再用天花粉等分細末之，取羊肝破開，入藥末于內，麻皮縛定，泔水煮熟，切食之。旬日即愈。

두창의 독이 위로 치받아 생긴 내장(內障)을 치료하는 처방은 다음과 같다. 온전한 뱀허물 1개를 깨끗이 씻어서 불에 쪄어서 말린다. 여기에 천화분을 같은 양을 넣고 곱게 가루 낸다. 양의 간을 쪼개어서 그 속에 약 가루를 넣고 삼 겹질로 단단히 묶어서 쌀뜨물로 삶아서 익힌 뒤 썰어서 먹는다. 10일간 먹으면 곧 낫는다.

(40) 卒然中暑氣閉，取大蒜一握，道上熱土雜研爛，以新汲水和之，濾去滓，灌之即蘇。見『避暑錄』。

갑자기 더위를 먹어 숨이 막힌 경우에는, 마늘 한 줌과 길 위의 뜨거워진 흙을 한 데 섞어서 문드러지게 갈아서 새로 길어온 물에 타서 찌꺼기를

막걸리에 섞어서 복용시키는 것이었다. 두창은 매우 위험한 병이다. 그러나 동요해서는 안된다. 치료의 요체는 오장의 기운을 곧세게 한 뒤에 병이 저절로 흘러가도록 맡겨두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변증이 있다면 약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 [周密云：同僚括蒼陳坡，老儒也，言其孫三歲時痘出而倒。色黑，唇口冰冷，危証也。遍試諸藥不效，恰有藥可起此疾，甚奇。因爲經營少許，持歸服之，移時即紅潤也。常懇求其方，乃用狗蠅七枚搗細，和醅酒少許調服爾。夫痘瘡固是危事，然不可擾。大要在固臟氣之外，任其自然爾。然或有變証，則不得不資於藥也。]

45) 도엽(倒靨) : 두창(痘瘡)의 악증(惡症) 가운데 하나로, 증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머무는 상태를 가리킨다. 許浚 著, 윤석희, 김형준 외 옮김. 對譯 東醫寶鑑.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6. p.1942. “두창이 돌아야 하는데 돌지 않거나, 부풀어올라야 하는데 부풀어오르지 않거나, 고름이 잡혀야 하는데 잡히지 않거나, 딱지가 앉아야 하는데 앉지 않는 것을 모두 ‘함복’·‘도엽’이라고 한다.[當出不出，當脹不脹，當貫不貫，當靨不靨，勻謂之陷伏倒靨。]”

46) 두창이 …… 된다 : 예후가 좋아졌음을 의미한다. 許浚 著, 윤석희, 김형준 외 옮김. 對譯 東醫寶鑑.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6. p.1928. “두창이 돌을 때 붉지 않고 윤기가 없는 것은 독이 왕성하여 막힌 것이다.[痘出色不紅潤者，毒盛壅塞故也。]”

걸러내고 입 속에 부어주면 즉시 깨어난다. 이것은 『피서록(避暑錄)』에 보인다.

(41) 楓樹菌食之則笑不可止. 陶隱居本草注: “掘地以冷水攪之令濁, 小頃取飲, 謂之‘地醬’, 可療諸菌毒.”

단풍나무 버섯[楓樹菌]을 먹으면 웃음을 그치지 못한다. 도은거(陶隱居)⁴⁷⁾의 본초(本草) 주석(註釋)⁴⁸⁾에 말하였다. “땅을 파고 냉수를 부어서 휘저어 탁하게 만든 다음, 잠시 있다 그것을 마시는데 이것을 ‘지장수(地醬水)’라고 부른다. 이것은 온갖 버섯독을 치료할 수 있다.”⁴⁹⁾

(42) 『香祖筆記』曰, 黃生某, 廬州人, 遊于吾郡, 偶以偏方療疾皆效. 記其三.

治積痞方, 用大葶麻去其殼, 一百五十箇, 槐枝七寸. 香油半觔, 二味同入油內, 浸三晝夜, 熬至焦, 去渣, 入飛丹四兩, 成膏, 再入井中, 浸三日夜, 取出, 先以皮硝水, 洗患處貼之.

治痔方, 便後以甘草湯盪洗過, 用五倍子荔枝草二味, 以砂鍋煎水, 盪洗. 荔枝草一名癩蝦蟆草, 四季皆有之, 面青背白, 麻紋累累, 奇臭者, 是也.

治血崩方, 用豬鬃草四兩, 童便清酒各一鍾, 煎一鍾溫服. 豬鬃草, 如莎草而葉圓. 淨洗用之.

『향조필기(香祖筆記)』에 말하였다. 황(黃) 아무개는

여주(廬州) 사람으로, 우리 고을에 유람 와서 마침 알려지지 않았던 처방으로 병을 치료했는데 모두 효험을 보았다. 그 가운데 3가지를 기록한다.

비적(痞積)을 치료하는 처방은 다음과 같다. 큰 피마자(겉질을 벗겨낸 것) 150개와 피화나무가지(1촌 짜리) 7개를 참기름 반 근에 함께 넣고 사흘 밤낮 동안 재운 뒤 탈 때까지 볶아서 찌꺼기를 제거한다. 여기에 수비한 단사(丹砂)⁵⁰⁾ 4냥을 넣고 고약으로 만들어 다시 우물 속에 넣고 사흘 밤낮을 담갔다 가 끄집어낸다. 우선 피초(皮硝)⁵¹⁾ 녹인 물로 환부를 씻어낸 뒤 앞의 고약을 붙인다.

치질을 치료하는 처방은 다음과 같다. 변을 본 후에 감초 달인 물로 뒤를 씻어낸 뒤, 오배자와 여지초(荔枝草) 2가지 약재를 사기 그릇에 넣고 달인 물로 씻어낸다. 여지초는 일명 나하마초(癩蝦蟆草)라고도 하는데, 사철 내내 있고 잎의 앞면은 푸르고 뒷면은 희며 깨알 같은 무늬가 겹겹이 있고 기이한 냄새가 난다.

혈붕(血崩)을 치료하는 처방은 다음과 같다. 저종초(豬鬃草) 4냥, 동변청주 각 1되를 함께 넣고 1되가 될 때까지 달여 따듯할 때 복용한다. 저종초는 향부자와 비슷하나 잎이 둥글다. 깨끗이 씻어서 써야 한다.

(43) 王介甫常患偏頭痛, 神宗賜以禁方, 用新蘿菴取自然汁, 入生龍腦小許, 調勻, 昂首滴入鼻竅. 左痛則灌右竅, 右痛則反之.

왕개보(王介甫)⁵²⁾는 늘 편두통을 앓아서 신종이 궁중의 비방을 하사하였다. 처방은 다음과 같다. 새로 나온 무를 즙을 내어 생 용뇌 조금을 넣어서 잘 섞은 뒤, 고개를 들어 콧구멍 속에 떨어뜨린다. 이때 왼쪽 머리가 아프면 오른쪽 콧구멍에 약을 넣고, 오른쪽

50) 단사(丹砂): 본문에서는 ‘丹’이라고만 하였으나 문맥상 단사, 즉 주사(朱砂)를 의미한다.

51) 피초(皮硝): 박초(朴硝)의 이명(異名)이다. 許浚 著, 윤석희, 김형준 외 옮김. 對譯 東醫寶鑑.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6. pp.2256-2257. “(박초는) 그 맛이 매우 뚱어서 말이나 소의 생가죽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피초(皮硝)라고도 한다. [其味醜澁, 可以熟生牛馬皮, 故亦曰皮硝.]”

52) 왕개보(王介甫): 신법(新法)으로 유명한 중국 송(宋) 때의 문필가이자 정치인인 왕안석(王安石, 1021-1086)을 가리킨다. 개보(介甫)는 그의 자(字)이다. 호는 반산(半山)이다.

47) 도은거(陶隱居): 남북조시대에 활동하였던 도사(道士)이자 의학자로 본명은 도홍경(陶弘景, 452-536)이다. 자는 통명(通明), 호는 화양은거(華陽隱居)이다.

48) 본초(本草) 주석(註釋): 도홍경(陶弘景, 452-536)은 『본초경집주(本草經集注)』라는 서적을 집필한 바 있다. 이 책은 서기 492년에서 500년 경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을 저본으로, 『명의별록(名醫別錄)』, 『약대(藥對)』, 『이당지약록(李當之藥錄)』 등을 참고로 당대의 약물학 지식을 정리한 책이다. 하지만, 『香祖筆記』 성립 당시 이 책은 이미 실전되었으므로, ‘本草注’이하 내용의 정확한 출전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번역하였다.

49) 단풍나무버섯 …… 있다: 『東醫寶鑑』에도 보인다. 許浚 著, 윤석희, 김형준 외 옮김. 對譯 東醫寶鑑.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6. p.1692. “단풍나무 버섯을 먹으면 사람이 계속 웃다가 죽는다. 지장을 마시는 것이 제일 좋고, 인분즙이 다음으로 효과가 있다. 다른 약으로는 치료할 수 없다. [楓樹菌食之, 令人笑不止而死. 飲地漿最妙, 人糞汁次之, 餘藥不能救.]”

머리가 아프면 왼쪽 콧구멍에 약을 넣는다.

(44) 鴛鴦草，藤蔓而生，黃白花對開，治癰疽腫毒尤妙，或服或傳，皆可。沈存中『良方』所載，卽金銀花也。又曰老翁鬚，『本草』注，忍冬，『群芳譜』，一名鴛鴦藤，一名金釵骨。

원앙초(鴛鴦草)는 덩굴지어 자라고 황백색 꽃이 쌍으로 핀다. 옹저와 종독을 치료하는 데에 매우 좋은데, 복용할 수도 있고 환부에 붙일 수도 있다. 심존중(沈存中)⁵³의 『소심양방(蘇沈良方)』에 실린 금은화(金銀花)가 바로 이것이다. 또 노옹수(老翁鬚)라고도 하는데, 도홍경의 『본초(本草)』 주석에서는 인동(忍冬)이라 하였고, 『군방보(群芳譜)』⁵⁴에서는 노사등(鴛鴦藤)이라고도 하고 금자골(金釵骨)이라고도 한다고 하였다.

(45) 謝在杭『文海披沙』云：“癩癧，黃龍浴水⁵⁵治之，應聲蟲雷丸及藍治之，食肺系蟲，獼爪治之，膈食蟲，藍汁治之，人面瘡，貝母治之。”

사제항(謝在杭)⁵⁶의 『문해피사(文海披沙)』에 말하였다. “슬가(蝨癩)⁵⁷는 황룡욕수(黃龍浴水), 황룡이 목욕한 물⁵⁸로

53) 심존중(沈存中) : 북송(北宋)의 심괄(沈括, 1031-1095). 존중(存中)은 그의 자이며, 호는 몽계옹(夢溪翁)이다. 『몽계필담(夢溪筆談)』의 저자로 유명하다.

54) 군방보(群芳譜) : 명(明)의 왕상진(王象晉, 1561 ~ 1653)이 찬(撰)한 농서(農書)로, 우리나라 실학자들이 많이 인용한 서적이다.

55) 黃龍浴水 : 『향조필기』에는 ‘黃龍浴水’로 되어 있다. 王士禛. 香祖筆記.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2. p.125. 번역은 이를 따른다.

56) 사제항(謝在杭) : 명(明)의 사조제(謝肇淛). 우리나라와 일본에 큰 영향을 미친 그의 저작으로 『오잡조(五雜俎)』가 있다.

57) 슬가(蝨癩) : 이를 먹어 생긴 징가(癩癧)를 가리킨다. 李時珍 編纂. 劉衡如, 劉山永 校注. 『(新校注本) 本草綱目』. 北京. 華夏出版社. 1998. p.1471. “이를 씹어 먹고 생긴 징. 산이나 들에 사는 사람들은 이를 잡아 씹어 먹곤 하는데, 배에서 이것이 자라 슬징이 된다. 오래된 빗을 두 조각 내어 한쪽은 태워 가루내고 다른 한쪽은 물 5되에 넣고 1되가 될 때까지 끓여 이 둘을 섞어 복용하면 대변으로 나온다. [嚙蝨成癩. 山野人好嚙蝨, 在腹生長爲蝨癩, 用敗梳敗篦各一枚, 各破作兩分, 以一分燒研, 以一分用水五升煮取一升, 調服, 卽下出.]”

58) 황룡욕수(黃龍浴水) : 누런 뱀이 살고 있는 물이다. ‘적룡욕수’가 붉은 뱀이 살고 있는 샘의 물을 의미한다는 사실로

치료하고, 응성충(應聲蟲)⁵⁹은 뇌환과 쪽으로 치료하고, 식폐계충(食肺系蟲, 폐를 갉아먹는 벌레)은 수달의 발톱으로 치료하고, 격식충(膈食蟲)은 쪽즙으로 치료하고, 인면창(人面瘡)⁶⁰은 패모로 치료한다.”⁶¹

미루어 알 수 있다. 李時珍 編纂. 劉衡如, 劉山永 校注. 『(新校注本) 本草綱目』. 北京. 華夏出版社. 1998. p.289. “적룡욕수는 연못 사이에 작은 샘이 있어 그곳에 붉은 뱀이 살고 있는 것으로 사람과 간혹 마주친다. 비가 내린 뒤에 물을 길어다 복용한다. [赤龍浴水. 此澤間小泉. 有赤蛇在中者. 人或遇之. 經雨取水服.]”

59) 응성충(應聲蟲) : 뱃속에서 어떤 것이 사람의 말을 따라 소리내는 증상을 가리킨다. 許浚 著, 윤석희, 김형준 외 옮김. 對譯 東醫寶鑑.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6. p.328. “말을 할 때마다 목구멍에서 어떤 것이 소리를 내어 대답하니 이것을 응성충이라 이름을 붙였다. 옛날 어떤 사람이 이 병을 앓았다. 의사가 본초를 읽게 하니 약물에 따라 모두 대답을 하다가 뇌환에 이르러 대답이 없었다. 그래서 뇌환 몇 개를 복용하였더니 나왔다. [人每言語時, 喉中有物, 作聲相應, 名曰應聲蟲. 昔有人患此病, 醫者教誦本草, 隨物皆應, 至雷丸則無聲, 遂服數枚而愈.]”

60) 인면창(人面瘡) : 창(瘡)이 사람의 얼굴 형상처럼 생기는 것을 가리킨다. 무릎이나 팔뚝에 생긴다고 알려져 있다. 許浚 著, 윤석희, 김형준 외 옮김. 對譯 東醫寶鑑.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6. p.1636. “인면창은 대부분 무릎에 생기는데, 팔뚝에 생기는 것도 있다. 고서(古書)에, ‘원통한 일로 생긴다’고 하였다. …… 몸에 사람의 얼굴 같은 창이 생기는데, 얼굴·눈·입·코가 모두 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왼쪽 팔에 창이 생겼는데, 무엇을 먹어도 다 먹고 술을 부으면 얼굴도 벌겋게 되었다. 의사가 모든 약을 시험해 보라고 하여 시험해 보니 다 싫어하지 않았는데 패모를 말하니 창이 눈썹을 찌푸리고 입을 다물었다. 그 사람이 웃으면서 치료할 수 있겠다고 하고 패모 가루를 물에 개어 창구 속에 넣으니 며칠이 지나 딱지가 생기면서 나왔다. […… 多生膝上, 亦有臂上生者. 古書云, 冤業所生. 人身有瘡, 如人面, 面目口鼻皆具. 昔有一人, 左膊上生瘡, 以物食之皆能食, 灌以酒則面亦赤色. 醫者教以歷試諸藥, 皆無苦, 至貝母, 其瘡乃聚眉閉口. 其人喜曰可治, 卽取貝母末, 和水灌入口中, 數日成痂而愈.]”

61) 슬가(蝨癩)는 …… 치료한다 : 『문해피사(文海披沙)』의 저자인 사조제(謝肇淛)의 『오잡조(五雜俎)』에도 비슷한 문구가 보인다. 謝肇淛. 五雜俎. 上海書店出版社. 2001. 08. p.102. “세상에는 예전부터 일종의 기이한 병이 있어왔는데 책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다. 치료하는 방법도 몹시 기괴하여 일반인들의 생각이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가담(賈耽)이 진단했던 노인의 슬가(蝨癩)는 세상에 고칠 수 있는 약이 없고, 다만 천년 묵은 나무로 만든 빗(梳)과 함께 황룡욕수(黃龍浴水)를 마시게 한다. 또 음식물에 목이 매어 죽게 된 경우 배를 갈랐을 때 자라가 나온다면, 백마(白馬) 오줌을 뿌려주면 자라가 모두 변해서 물이 된다. 혹은 쪽(藍)의 즙으로 치료한다고 한다. 응성충(應聲蟲)을

(46) 武昌小南門獻花寺老僧自究者, 病噎食, 臨終, 謂其徒曰: “我不幸罹斯疾, 曾聞必有物爲祟, 歿後剖視, 乃可入斂.” 其徒如教, 得一骨如簪形, 取置經案. 久之, 有兵師[帥]借寓. 從者殺鵝, 其喉未殊, 偶見此骨, 取以挑刺, 鵝血淺[濺]骨, 骨立消. 後其徒亦病噎, 因前事悟鵝血可療, 數飲之, 遂愈. 因廣其傳, 以方授人, 無不愈者.

무창(武昌) 소남문(小南門) 헌화사(獻花寺)의 자구(自究)라는 늙은 중이 열식(噎食)⁶²을 앓았다. 임종 때에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불행히 이 병에 걸렸다. 가슴 가운데 필시 무언가가 있어 빌미가 되었을 것이니 내가 죽은 후에 가슴을 갈라 살펴본 뒤에 입관하도록 하라.” 제자들이 시키는 대로 하였더니 비너처럼 생긴 뼈 하나가 나와 이 뼈를 불경 공부하는 책상 위에 두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어떤 군사를 거느린 장수가 이 방을 빌어서 우거하였다. 시종이 거위를 잡았는데 잘 죽지 않았다. 이때 우연히 이 뼈를 보고서 그 것으로 목을 땀는데 거위의 피가 뼈에 뿌러지자 뼈가 순식간에 녹아 없어졌다. 훗날 그 시종도 역시 열식(噎食)을 앓게 되었는데, 전날의 일로 인해 거위의 피로 치료할 수 있다고 깨달아 거위 피를 자주 마셨더니 마침내 나왔다. 이로 인해 이 사실을 널리 알리고 처방을 사람들에게

않는 자의 경우, 사람들은 『본초(本草)』를 읽게끔 한다. 뇌환(雷丸) 조(條)에 이르러 벌레가 책 읽는 소리에 반응이 없을 경우, 처방대로 약을 먹으면 곧 차도가 있다. 또 면창(面瘡)이 생긴 경우, 여러 종류의 약을 먹이되 함께 삼키게 하는데, 패모(貝母)를 먹을 경우는 입을 다물고 눈을 감게 하고는 억지로 패모즙을 부어주면 딱지가 얇게 된다 하니, 이것 또한 기이한 일이다.[世間固有一種奇疾, 非書所載, 而療治之方亦殊怪僻, 非人意想所及者. 如賈耽所視老人蝨痕, 世間無物可療, 惟千年木梳及黃龍浴水飲之. 又有噎死, 剖腹得髓者, 白馬溺淋之悉化爲水, 一云藍汁治之. 有患應聲蟲者, 人教以讀『本草』, 至雷丸獨不應, 遂以主方投之, 立差. 又有生面瘡者, 諸藥飼之俱下咽, 至貝母則閉口瞑目, 乃振而灌之, 遂結痂云, 此亦奇矣.]”

62) 열식(噎食) : 열증(噎症)으로 음식을 넘기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許浚 著, 윤석희, 김형준 외 옮김. 對譯 東醫寶鑑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6. p.1309. “혈액이 모두 소모되고 위안이 마른 경우 상부에서 마른 것은 목구멍과 가까운 곳에 막혀서 물은 마실 수 있으나 음식물은 넘기기 어렵고, 간혹 넘기더라도 그 양이 많지 않다. 이것을 열(噎)이라고 한다.[血液俱耗, 胃脘乾槁, 其槁在上. 近咽之下, 水飲可行, 食物難入, 間或可入, 入亦不多, 名之曰噎.]”

전수하니 낫지 않는 경우가 없었다.

(47) 治難產方, 用杏仁一枚去皮, 一邊書日字, 一邊書月字, 用蜂蜜黏住, 外用熬蜜爲丸, 滾白水或酒吞下. 此方乃異僧所傳.

난산을 치료하는 처방은 다음과 같다. 살구씨 하나를 껍질을 벗겨내고 한 쪽에는 ‘日’자를 쓰고 다른 한 쪽에는 ‘月’자를 쓴 뒤 벌꿀로 붙인다. 그 겉에 줄인 꿀을 발라서 환으로 빚은 다음 끓인 맹물이나 술로 삼킨다. 이 처방은 바로 이승(異僧)이 전수한 것이다.

(48) 孫思邈『千金方』: 人蓼湯須用流水煮, 用止水則不驗. 見『人蓼譜』.

손사막(孫思邈)의 『천금방(千金方)』에 말하였다. 인삼을 달일 때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로 달여야 한다. 고인 물을 쓰면 효험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은 『인삼보(人蓼譜)』에 보인다.

(49) 『談圃』記: “曾魯公七十餘病痢, 鄉人陳應之, 用水梅花臘茶服之, 遂愈.” 但不知水梅花, 是何物.

『손공담포(孫公談圃)』⁶³에 “노공(魯公) 증공량(曾公亮)이 70여 세에 이질을 앓았는데 동향 사람 진응지(陳應之)가 수매화(水梅花)와 작설차를 먹였더니 마침내 나왔다.” 하였으나 수매화가 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50) 張鐸僉事言: “鵝能辟小兒疳氣, 當多置房養之. 清晨令兒開房放鵝, 其氣著面則無疳氣.”

첨사(僉事) 장택(張鐸)이 말하였다. “비둘기는 어린아이의 감기(疳氣)를 물리치니, 방 안에 많이 두고 길러야 한다. 첫새벽에 어린아이에게 방문을 열고 비둘기를 날려 보내어 그 기운이 얼굴에 입히면 감기(疳氣)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51) 『倦遊錄』載: “辛稼軒患疴疾, 一道人教以薏苡米,

63) 손공담포(孫公談圃) : 송(宋) 손승(孫升)이 술(述)하고 유연세(劉延世)가 찬(撰)하였다. 『설부(說郛)』와 『괘해(裨海)』 등의 총서에 수록되어 있다.

用東壁黃土炒過，糞爲膏服，數服即消。程沙隨病此，稼軒以方授之，亦效。”

『권유록(倦遊錄)』⁶⁴⁾에 말하였다. “가헌(稼軒) 신기질(辛棄疾, 1140-1207)이 산질(疝疾)을 앓았는데 어떤 도인이 울무 알을 동벽의 황토⁶⁵⁾와 섞어 볶은 뒤 줄여서 고약을 만들어 복용하라고 하였다. 이 약을 여러 번 복용했다니 곧 나았다. 시수(沙隨) 정형(程迥)이 이 병을 앓자 가헌이 이 처방을 주었고 역시 효험을 보았다.”

(52) 『文昌雜錄』云：“鼎州通判柳應辰傳治魚鯁法，以到流水半盞，先問其人，使之應，吸其氣入口中，面東誦‘元亨利貞’七遍，吸氣入水，飲少許，即差。”

『문장잡록(文昌雜錄)』⁶⁶⁾에 말하였다. “정주(鼎州)의 통판(通判) 유응진(柳應辰)이 전한 생선 가시가 목에 걸린 것을 치료한 처방은 다음과 같다. 거슬러 흐르는 물 반 잔을 떠 놓고 우선 환자에게 질문을 하여 대답을 하게 한 뒤, 그 기운을 들이마셔서 입에 머금은 다음, 동쪽을 향해 ‘元亨利貞’을 7차례 암송하게 한다. 들이마신 숨을 물에 불어넣고 조금 마시면 즉시 낫는다.”

(53) 治水疾，檣槩交夏處，刮取少許，船底塵土，和舵工掌垢爲丸，鹽湯吞下三丸，神效。⁶⁷⁾

배멀미를 치료하는 처방은 다음과 같다. 노가 닿아서 삐걱거리는 곳을 조금 긁어내고 또 배 바닥의

먼지를 긁어서 키를 잡은 뱃사공 손바닥의 때와 섞어 환을 빚은 다음 소금물로 3환을 삼키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

附[부록]

(54) 面上水瘡，俗號武射莫爲，治方，秋海水洗，立消無痕。余從弟綏源履仲，八九歲時，滿面水瘡，百方無效。有魚姓老醫，教洗入九月海水，數洗立效。

얼굴에 난 수지(水瘡)는 속칭 무사마귀[武射莫爲]라고 하는데 치료하는 처방은 다음과 같다. 가을철 바닷물로 씻어내면 곧 없어지고 흔적도 남지 않는다. 나의 종제 이중(履仲) 박수원(朴綏源)이 8~9세 되었을 때 얼굴에 무사마귀가 가득하였는데 온갖 처방을 써도 효험이 없었다. 어씨(魚氏) 성의 어떤 늙은 의원이 음력 8~9월의 바닷물로 씻어내라고 하였는데, 여러 차례 그렇게 했더니 곧 효험을 보았다.

(55) 余十一二歲，滿面鼠乳癩，眼睫耳輪尤甚，繁繁如黏飯顆，照鏡輒大啼恚，百方無效。時方春夏，難等秋海水，取鹽井水泡，和水，數洗自乾，神效。余廣其傳，無不收效。

내가 11~12살에 얼굴에 한 가득 쥐젖이 있었는데 속눈썹 부위와 귓바퀴에는 더 심하여 밥티 같은 것이 겹겹이 붙어 있는 것 같았다. 거울을 보면 문득 크게 울거나 화가 났었지만 온갖 처방이 효험이 없었다. 때는 막 봄이나 여름이어서 가을철의 바닷물을 기다릴 수 없어 염정(鹽井)의 물거품에 물을 타서 여러 차례 씻고 저절로 마르게 하였더니 신묘한 효험이 있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널리 퍼뜨렸는데 효험을 보지 않은 경우가 없었다.

(56) 王鵠汀僕鄂哥，年二十一，貌頗佼好。方患痲苦劇，鵠汀問余請教貴國太醫。余曰：“不須問醫，掘土濕處，得蚯蚓數十條，入白滾湯，取汁，煩渴引飲，以此水多飲之，當有效。”鵠汀立試之，即差。

왕혹정(王鵠汀)의 비복인 약가(鄂哥)는 21세로 얼굴이 잘생겼다. 마침 이질을 앓아 크게 고생하는 터였는데, 혹정이 나에게 우리나라 태의(太醫)를 청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내가 말하였다. “의원에게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습한 땅을 파서 지렁이 수십 마리를

64) 권유록(倦遊錄) : 송(宋) 장사정(張師正)의 저작이다. 권유잡록(倦遊雜錄)이라고 하며, 『설부(說郛)』에 수록되어 있다.

65) 동벽의 황토[東壁黃土] : 해 뜨는 동쪽에 자리한 흙벽에서 긁어낸 흙을 말한다. 탈향, 온학, 설사, 객란 등을 치료하는데 사용된다. 許浚 著, 윤석희, 김형준 외 옮김. 對譯東醫寶鑑.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6. p.1996. “동쪽 벽은 늘 동틀 무렵에 햇볕을 먼저 받아 데워진다. 해는 태양의 진화(眞火)이다. 화가 생겨나는 시간에 그 기운이 장성하니 남쪽 벽을 쓰지 않고 동쪽 벽의 흙을 쓰는 것이다. 먼저 햇볕을 받는 부분을 긁어서 쓴다. 오랜 세월 연기에 그을린 것이 더 좋다.[東壁, 當先得曉日烘灸. 日者太陽眞火, 火生之時, 其氣壯, 故不取南壁, 而取東壁土也. 先見日光處, 刮取用之. 多年被烟熏者, 尤好.]”

66) 문장잡록(文昌雜錄) : 송(宋) 방원영(龐元英)의 저작이다. 『설부(說郛)』에 수록되어 있다.

67) 治水疾, …… 神效 : 배멀미에 대한 이 처방이 『향조필기(香祖筆記)』에는 보이지 않는다. 애초에 ‘부록’ 부분은 이 부분부터 시작되었는데, 『열하일기』 출간 과정에서 앞으로 밀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한다.

잡아 끓는 물에 넣고 즙을 취해 번갈아 있을 때마다 이 물을 많이 마시면 효험이 있을 것입니다.” 흑정이 바로 시험하였는데 곧 차도가 있었다.

(57) 有穆生者, 方患瘧, 鶴汀引生示余請方. 余言露薑汁, 穆稱謝而去. 翌日還程, 未知試此收效否也. 蓋露薑汁治瘧良方, 取生薑一角, 擦取汁, 露置一夜, 日出前東向坐嚥下. 屢試屢效.

목생(穆生)이란 사람이 학질을 앓아서 흑정이 그를 나에게 데리고 와서 처방을 청하였다. 나는 이를 맞힌 생강즙을 처방했더니 목생은 사례를 하고 갔다. 다음날 북경으로 돌아가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이 처방을 시험하여 효험을 거두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게 되었다. 이를 맞힌 생강즙은 학질을 치료하는 양방(良方)으로 처방은 다음과 같다. 생강 1쪽을 문질러 즙을 내어 하룻밤 동안 밖에 둔 뒤 해가 뜨기 전에 동쪽을 향하고 앉아서 마신다. 여러 차례 시험해 보았는데 모두 효험을 보았다.

(58) 口外人多癭, 女子尤甚. 余授鶴汀一方曰: “癭若是痰核, 則每飯時, 先抄一匙置掌中, 團握, 飯畢, 以鹽少許入掌中飯, 以明指擦喉間之, 久久自潰. 飯用粳米飯”

고북구(古北口) 밖에 사는 사람들은 목에 혹이 많이 달렸는데, 여자가 유독 더하였다. 나는 흑정에게 처방 하나를 가르쳐 주었다. “혹이 만약 담핵(痰核)이라면 매번 밥 먹을 때마다 먼저 한 술을 떠서 손바닥에 두고 동글하게 뭉쳐서 쥐고 있다가 밥을 다 먹은 뒤에 손바닥의 밥에 소금 약간을 넣은 뒤 엄지손가락으로 문드러지게 비벼서 환부에 붙인다. 오래 지나면 혹이 저절로 터지게 된다. 밥은 멥쌀밥을 써야 한다.

(59) 催產方, 取葶麻子一箇搗, 傳足掌中湧泉, 順產. 產後, 須即去之, 若忘未即去, 恐生帶下.

출산을 촉진하는 처방은 다음과 같다. 피마자 1개를 찧어서 발바닥 가운데의湧泉혈에 붙이면 순산하게 된다. 해산을 하고 나면 바로 떼어내어야 하니, 만약 바로 떼어내는 것을 잊으면 대하가 생길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60) 壯陽方, 取秋蜻蜓去頭翅足, 研極細, 泔水和丸, 三合, 能生子, 一升, 老人能媚少姬.

양기를 북돋는 처방은 다음과 같다. 가을잠자리를 잡아서 머리·날개·다리를 떼어내고 몹시 곱게 갈아서 쌀뜨물로 환을 빚는다. 3홉을 먹으면 자식을 낳을 수 있고, 1되를 먹으면 노인도 소녀와 사랑을 나눌 수 있다.

已上書與王鶴汀.

이상을 기록하여 왕흑정에게 주었다.

III. 고찰

기존 결과물의 오류 사항 중 의학적인 부분의 오류를 정리해보면 <표1>과 같다. 대부분의 의학적인 지식의 부재에 기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蝦蟆衣, 鷺鷥膝, 鴨嘴膽礬, 土鱉 등은 다소 생소한 본초명들이며, 특히 조선의 의서에서 찾아보기 힘든 본초들이어서 오류가 나온 듯하다. 鴨嘴膽礬의 경우 기존 번역물에서는 2가지 본초로 보고 “오리부리”와 ‘담반’이라고 국역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石膽의 異名으로 가장 질 좋은 석담을 가리키는 말이다. 鷺鷥膝의 경우 ‘金銀花’(忍冬의 꽃이다)로 풀이한 경우가 있었으나 이 경우 꽃을 약재로 썼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忍冬’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안타까운 것은 無灰酒처럼 한의서에 몹시 자주 등장하는 약재를 풀어서 번역한 경우로 여겨진다. 이러한 경우는 走馬疔, 倒靨, 人面瘡, 應聲蟲 등 『東醫寶鑑』 등 기본 한의서에서도 내용을 살필 수 있는 병명이나 병증에 대한 잘못된 풀이가 존재한다. 그리고 菘蓂葶草, 木紅花[水紅花], 淬次自然銅[醋淬七次自然銅], 黃龍沿[浴]水 등에 대한 풀이는 「金蓼小抄」 자체가 지닌 관본적인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의학적인 부분이 결함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오류들은 특히 기존의 오류들을 상당 부분 해소한 번역 결과물에서도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이는 한의학 관련 고문헌의 가공작업 시에

표 1. 『熱河日記』所在 「金蓼小抄」 翻譯 訂正案

연번	句文	② 민족문화추진회본 (연민 이가원)	③ 돌베개본 (김철조)	정정
(2)	灸乾搗羅爲末, 無灰酒調下.	불에 구워 말린 뒤에, 빻아서 가루를 만들 때 재를 없게 하여 술에 타서 마신다	불에 구워 말리고 빻아서 재를 없이 하여 술에 타 먹었다	搗羅 : 빻아서 체질하다 無灰酒 : 무회주 *각주 15번 참조
(14)	蝦蟆衣	두꺼비 껍질	두꺼비 껍질 말린 것	차전초[蝦蟆衣]
(15)	鷺鷥膝	노사등(鷺鷥藤 한약재의 일종)	금은화金銀花	인동(忍冬)
(16)	鴨嘴膽礬	오리주둥이·담반(膽礬 한약재의 일종)	오리 부리와 담반膽礬	석담(石膽) *각주 28번 참조
(20)	蓼葦草 木紅花[水紅花]	도꼬마리 목홍화(木紅花)	도꼬마리 목홍화木紅花	희협초 수홍화(水紅花) 혹은 지분자(地 芬子)
(21)	白水	맹물	쌀뜨물	맹물
(24)	土蠶 淬次自然銅[醋淬 七次自然銅]	자라 뜨거운 대로 물에 적서어 자연동 (自然銅)	자라 이를 물에 적신 다음, 자연동自然 銅	자충[蠶蟲, 土蠶] *각주 34번 참 조 자연동(식초에 7차례 담금질한 것) *각주 33번 참조
(26)	櫟炭末	참나무 숯가루	참나무 숯가루	상수리나무[櫟]의 숯가루 *각주 36번 참조
(28)	走馬疳 連內蝦蟇存性	주마감(走馬疳) 불에 태워 남은 재 덩이를	담이 이곳저것을 옮겨다녀서 몸이 육신거리리는 병인 주마감走馬疳 불에 태워서 본래의 성질을 없애고	주마감(走馬疳) *각주 37번 참조 내장을 제거하지 않은 채 약성이 남게 불살라
(30)	不痛灸痛, 痛者灸 不痛, 卽止.	뜨면 아프지 않기도 하고, 또는 아 프기도 한데, 아픈 데는 뜨고 아프 지 않으면 그만둔다.	뜸을 떼서 아프면 그대로 계속 뜨 고, 아프지 않으면 즉시 그만둔다.	통증이 없을 경우에는 통증이 생길 때까지 뜸을 뜨고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뜸을 뜬 다음 멈춘다.
(35)	鴨嘴膽礬 盡去筋膜塵土	오리주둥이와 담반(膽礬) 눈꼽 먼지와 눈알을 죄다 씻고	오리 주둥이와 담반膽礬 눈의 근육막에 붙은 진흙과 먼지를 씻어 내고	석담(石膽) *각주 28번 참조 옹담의 근육막 먼지를 모두 씻어 내고
(38)	倒靨	뒤틀어지고	보조개가 뒤틀리며	도엽(倒靨) *각주 45번 참조
(39)	治痘毒上攻內障方 焙燥	천연두 독 때문에 밖으로는 죄어들 고 안으로는 막히고 할 때는 불에 쪼여 말리고는	천연두 독으로 겉으로 치솟고 안이 막히는 병에는 바짝 말려서	두창의 독이 위로 치받아 생긴 내장(內障)을 치료하는 처방은 불에 쪼여서 말린다
(45)	黃龍浴水 [黃龍浴水] 應聲蟲 人面瘡	황룡연수(黃龍浴水 미상) 응성충(應聲蟲) 얼굴에 돋은 창	황룡연수黃龍浴水 미상 (주석으로 ‘똥 에서 생기는 맑은 물’이라 되어 있음.) 목구멍 속에 생기는 기생충 사람 얼굴에 나는 종기	황룡욕수(黃龍浴水) *각주 55번, 58번, 61번 참조 응성충(應聲蟲) *각주 59번 및 61번 참조 인면창(人面瘡) *각주 60번 및 61번 참조

한의학적 소양을 지닌 인적자원의 활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웅변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IV. 결 론

『金蓼小抄』는 燕巖이 남긴 의학 관련 유일 저작
이라고 할 수 있다. 연암의 작품인 만큼 적지 않게
臆炙된 것이 사실이나 그 번역의 결과물에서는 적지
않은 오류가 포착된다. 그 오류 상황을 적시하면 대개

3가지 유형 정도로 파악될 수 있다.

1. 생소한 본초명에서 기인한 오류 : 蝦蟆衣,
鷺鷥膝, 鴨嘴膽礬, 土蠶 등.
2. 한의학적 병명이나 병증에 대해 익숙하지 못해
생긴 오류 : 走馬疳, 倒靨, 人面瘡, 應聲蟲 등.
3. 『金蓼小抄』의 판본에 기인한 오류 : 蓼葦草,
水紅花, 醋淬七次自然銅, 黃龍浴水 등.

이상의 오류들의 문제점은 無灰酒, 倒靨 등 한의

서에 몹시 자주 등장하는 용어에 대해서도 오류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가장 최근에 기존 오류들에 대한 상당한 보정을 가한 번역 결과물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특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이는 「金蓼小抄」등 실학자가 남긴 의학 관련 자료가 한학자와 한의학자 사이에서 연구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었음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한학자의 경우 한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번역에 임하였었고 한의학자의 경우 자신의 영역이 아닌 것으로 치부해온 것에 기인하는 듯하다.

향후 이와 같은 오류에 대한 최소화와 보정을 위해서는 두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작업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본격적 의미의 한의학 자료 뿐 아니라 『朝鮮王朝實錄』·『承政院日記』등 국고문헌에 대한 보정이나, 각종 문집, 그리고 四庫 분류 체계에서 子部에 속하는 각종 서적의 번역 및 교열 작업에서의 조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V. 참고문헌

<논문>

1. 박상영, 오준호, 권오민. 朝鮮 後期 韓醫學 外延 擴大의 一局面.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17권 3호. 2011년 12월. pp.1-8.
2. 김동준. 연암 박지원의 저술에 대한 역주 성과를 되돌아보며 : 『연암집』, 『열하일기』 그리고 『연암산문정독』. 고전번역연구 제 2집. 한국고전번역학회. 2011. 09. pp.228-233.

<단행본>

1. 박지원 지음. 김철조 옮김. (새 번역 완역 결정판) 열하일기1, 2, 3. 파주. 돌베개. 2011. 04.
2. 금리산인. 국역 의회 1.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10.
3. 許浚 著, 윤석희 김형준 외 옮김. 對譯 東醫寶鑑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6.
4. 박지원 씀. 리상호 옮김. 열하일기(겨레고전문학선집 1-3). 파주. 보리. 2004

5. 江蘇新醫學院 編. 中藥大辭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4.
6. 고미숙.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 서울. 그린비. 2003. 03.
7. 謝肇淛. 五雜俎.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2001.
8. 李時珍 編纂, 劉衡如, 劉山永 校注. 『(新校本)本草綱目』. 北京. 華夏出版社. 1998.
9. 김명호. 열하일기 연구.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0.
10. 陳嘉謨. 本草蒙筌.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8.
11. 王士禛. 香祖筆記.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2.
12. 朴趾源 著. 李家源 譯註. 國역 열하일기 I, II.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6. 09.

<온라인자료>

1.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熱河日記 . 金蓼小抄. [cited 2012 Feb. 12]: Available from URL: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M&url=/itkcdb/text/nodeViewIframe.jsp?bizName=MM&seojiId=kc_mm_a568&gunchalId=av015&munchelId=01&finId=005&NodeId=&setid=642789&Pos=0&TotalCount=11&searchUrl=ok
2.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燕巖集. 熱河日記. 金蓼小抄. [cited 2012 Feb. 12]: Available from URL: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M>
3.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五洲衍文長箋散稿. 紫姑戲辨證說【附砧蟲】. [cited 2012 Feb. 12]: Available from URL: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KO&url=/itkcdb/text/nodeViewIframe.jsp?bizName=KO&seojiId=kc_ko_h010&gunchalId=av017&munchelId=04&finId=078&NodeId=&setid=646349&Pos=0&TotalCount=1&searchUrl=ok
4.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cited 2012 Feb. 12]: Available from URL: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K&url=/itkcdb/text/nodeViewIframe.jsp?bizName=MK&seojiI>

- d=kc_mk_a001&gunchaId=av001&muncheId=03&finId=004&NodeId=&setid=650172&Pos=0&TotalCount=1&searchUrl=ok
5.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cited 2012 Feb. 12]: Available from URL: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M&url=/itkcdb/text/nodeViewIframe.jsp?bizName=MM&seojiId=kc_mm_a592&gunchaId=av003&muncheId=01&finId=094&NodeId=&setid=652206&Pos=0&TotalCount=11&searchUrl=ok
 6. 네이버 백과사전. [cited 2012 Feb. 12]: Available from URL: <http://100.naver.com/100.nhn?docid=70322>
 7. 朱橚. 普濟方. 卷61. 書同文. 欽定四庫全書 [CD-ROM]. 北京. 書同文. 1999.
 8.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cited 2012 Feb. 12]: Available from URL: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K&url=/itkcdb/text/nodeViewIframe.jsp?bizName=MK&seojiId=kc_mk_i011&gunchaId=fv003&muncheId=01&finId=001&NodeId=&setid=655943&Pos=0&TotalCount=1&searchUrl=ok